

먹고 사는 단계를 지나면



임 경 수 교수의 라이프롱 디자인

부서 회식이 끝났는데도 술자리를 더 갖자는 직원들의 요청을 뿌리친다. 또 다시 변함없는, 밤 늦은 지하철에 몸을 싣는다. 언제부턴가 자동문에 기대어 마치 스캔이라도 하듯 차창 밖의 밋밋한 야간 도시를 관찰한다. 그날 문득, 낡은 상가 윗층의 창문이 열리고, 백열등으로 환한 공간이 뻗어 드러난다.

‘셀 위 댄스’(1996년 개봉, 일본영화)의 주인공 스기야마 씨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춤이라는 새로운 발견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한국판 영화포스터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쓰여 있었다.

또 다른 한 사람, 에두아르드 C. 린드만. 독일-덴마크계 이민자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마구간 청소부, 벽돌공장 노동자, 식료품 배달부를 마다하지 않았던 그가, 22세에 미시간농업대학(현 미시간주립대학교)에 진학하여 수많은 지적인 자극을 받고, 형식교육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 1학년 준비반을 거쳐 정규과정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런 그가 ‘성인교육의 아버지’라 불릴 만한 업적을 쌓았으며, 그가운데 바로 ‘성인교육의 의미(The Meaning of Adult Education: 1926년 발행)’가 있다.

스기야마 씨와 린드만 선생님이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물론, 린드만 선생님이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 1885년생으로 1953년에 타계하였으니 무려 43년 후의 영화다. 그렇지만 린드만 선생님이 얘기한 ‘성인교육의 의미’가 이보다 더 잘 표현된 것은 없으리라. 린드만 선생님의 이야기로 들어가보자.

성인학습은 ‘빵과 버터’ 단계를 지나면 언제 어디서나 문화적 목적을 향해 진화한다. 우리로 치면 ‘밥과 김치’가 해결되면 그 다음은 문화다. 성인교육은 무엇이 좋은 음악, 좋은 그림, 좋은 문학이라고 정해진 기준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다. 개개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즐기는지를 발견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야말로 ‘셀 위 댄스’의 스기야마 씨인 셈이다.

린드만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만난 ‘농부 화가’의 이야기도 뜻깊다. 그는 농부를 천직으로 삼았을지 모르지만, 자신을 그

림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것을 꿈꾸었다.

어느날 성인교육기관의 한 독일인 교사가 농부의 열망을 알아보고, 미술수업으로 그를 안내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며 행복감을 맛보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다.

린드만 선생님은 “그림 그리기는 먹고 살기 바빠 전혀 할 수 없었던 그의 품성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또한 “그의 단정한 그림에 너무도 매료되어 그 그림을 사겠다고 제안하기까지 했지만 그는 이를 거절했고, 내가 여가의 산물에 값을 매기려 한다며 나를 심하게 비난했다”고 적었다.

왜 그랬을까? “그가 여가와 학습에서 찾아낸 모든 것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나는 지금도 부끄러운 감정에 젖어든다”는 것이다.

린드만 선생님의 통찰은 더 나아가다.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부유한 사람들만 향유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예술이 결코 해방하는 힘이 될 수 없다. 예술과 감상, 즐거움은 고유의 감각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속해 있다. 성인교육은 이러한 자질을 발견하고 이끌어내는 것일 뿐이다.

(/한국대 글로벌캠퍼스 교수(성인학습지원센터장))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박 정 익 (정치경제부)

정치가 사라지고 있다. 여야대표들이 갈등의 사안에 따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모습이 어느샌가 볼 수 없게 됐다. 그 대신 이 자리는 사법이 차지해 정치를 대신하고 있고, 사회의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맹목적인 지지자들을 이용해 자신의 안위만을 쫓고 있다.

야당 대표의 단식이 19일째를 맞이하며 결국 병원에 후송됐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은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당 소속 의원들의 단식 중단 요청을 거부하고 단식을 이어간다는 의지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병원에 후송된 그 시간에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여야 갈등을 비롯해 야당과 윤석열 정부의 갈등도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단식 이전, 황교안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전면적인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에 따르면 당시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매일 황 대표를 찾아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위로하며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번 이 대표의 단식에 대통령실은 무관심으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단식투쟁 초반 조롱과 비난의 모습을

보였다.

물론 반대 진영에서는 공감할 수 없는 단식에 조롱할 수는 있으나, 최소한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에 정치적인 예의로서 정부여당에서는 단식장을 찾아 대화를 시도하고, 단식 중단을 정중하게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그저 말만 전할 뿐이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대한민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정치다. 이제부터라도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길 바라본다. 민심을 받들고, 갈등을 조정하고, 정책의 차이를 조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도 통 크게 나아가길 기대한다. (/pathfinder@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9월 19일 (음 8월 5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우는 아이는 굶지 않는 법. **48년생** 과한 것보다 약간 모자란 것이 훨씬 낫다. **60년생** 종로에서 빵 맛과 한강 가서 분풀이. **72년생** 불이 나면 가까운 곳에 있는 물로 꺼야 한다. **84년생** 좋아도 싫어도 금방 표현하면 반드시 후회.
- 37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을 하니 주의. **49년생** 올바른 처신이 구설수를 예방한다. **61년생** 마음이 우울하지만 자식이 웃을 일을. **73년생** 소금장사 나가는 데 비 오는 격이다. **85년생**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지 말도록.
- 38년생** 검은색 옷을 입을 일이 생긴다. **50년생** 자식이 아무리 예뻐도 가르칠 건 가르쳐라. **62년생** 비상금을 활용하여 위기를 우선 모면하자. **74년생** 원칙을 벗어난 투자를 하게 되면 큰 낭패. **86년생** 심신은 고단하나 재물은 들어온다.
- 39년생**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 보자. **51년생** 성공을 원하면 사람 사귀에 능해야 한다. **63년생** 결혼은 돌이 하는 거지만 인생은 결국 혼자서 하는 여행. **75년생** 주변과 다투지 마라. **87년생** 함께 하려거든 상대를 의심하지 마라.
- 4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반드시 더러워지기 마련. **52년생** 미래를 지금부터라도 준비. **64년생** 꿈은 도망가지 않는다 언제나 도망가는 것은 자신이라는 걸 명심. **76년생** 음주주의. **88년생** 애써 한일이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음이다.
- 41년생** 어디서 부는 바람이 근심을 견어간다. **53년생**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모르니 매사에 최선. **65년생** 상대전점에 집착하지 말고 일을 크게 보고 진행. **77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으나 주의가 필요. **89년생** 음식섭취에 유의.
- 42년생** 용이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계획한 바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54년생** 허나를 뿌렸는데 세 개로 돌아온다. **66년생** 사소한 일로 일희일비하지 마라. **78년생** 운세가 상승할 때이니 재기에 성공. **90년생** 형제와 대화 중 불화를 조심.
- 43년생**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 **55년생** 배우자의 위위가 필요한 날. **67년생** 급할수록 돌아가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9년생**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힘껏 노를 저어야 할 때. **91년생** 업무에 좋은 협력자가 생긴다.
- 44년생** 잘못이 있으면 오금이 저리는 법이니 세균 청결보라. **56년생** 산도 좋고 물도 좋은데 정자까지 좋은 곳은 없다. **68년생** 전체를 파악해야 할 곳이 보인다. **80년생** 새 출발 하는 시기. **92년생** 닭 닭한 개 지붕 쳐다보니 실력을 키우자.
- 45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갈등이 생긴다. **57년생** 남에게 해를 끼치면 두 배로 돌아오니 주의. **69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한다. **81년생** 꽃피고 새가 지저귀니 이제 행동할 때이다. **93년생** 남쪽으로 길을 나서면 발걸음이 가볍다.
- 46년생** 사람이 찾아오니 기다리던 소식이 올 것이다. **58년생** 무리하지 말고 능력과 형편에 맞출 것. **70년생** 사소한 인연이라도 소홀히 대하지 마라. **82년생** 이직해보야 오십보백보가 될 것인데. **94년생** 건물생심(見物生心)보다 현실을 파악.
- 47년생** 욕심 많은 사람은 보석비가 쏟아져도 만족을 모른다. **59년생** 돼지우리를 먼저 만들고 돼지를 사러 가야 한다. **71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자. **83년생** 아는 길도 물어 가라. **95년생** 필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김상희의四季

풍수 길지



동향집 서향집 남향집 북향집이 있다. 그중 하나를 골라서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 남향집을 고를 것이다. 남향집을 고른 사람들에게 풍수를 아느냐고 물어보면 절반 이상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풍수를 몰라도 사람들은 별이 잘 드는 집을 고른다. 그런 집이 좋은 집이라는 걸 체험으로 알기 때문이다. 별이 잘 드는 곳은 길지라고 할 수 있고 별이 잘 들면 밝고 따뜻하다. 그런 곳은 나무와 식물이 잘 자란다. 별에서 생성되는 기운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어서 그렇다. 나무와 식물이 좋아하는 땅은 사람에게도 좋다.

좋은 터에 자리 잡으면 일이 잘 풀려나가고 건강이 좋아진다는 건 오래된 경험에서 도출된 근거 있는 이론이다. 기술이 발전하기 이전 시대에 사람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살고 있는 터였다. 해가 잘 들고 바람을 막아주고 물을 구하기 편한 터를 찾는 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로 생존과 생활의 풍요를 결정했다. 즉 배산임수란 생존의 기본이다. 나무와 풀이 싱그럽게 자란다는 건 주변의 기가 좋다는 의미이다. 서울에는 예로부터 부자동네로 불리는 곳이 있다. 한남동 성북동 평창동 등이다.

서울이 아파트로 뒤덮이는 요즘에도 단독주택이 많고 여전히 부자 동네 소리를 듣는다. 남향으로 별이 잘 들고 산이 감싸 안고 있는 형세가 공통점이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있으면서도 푸른 숲이 무성하다. 좋은 기운이 모이는 요건을 갖췄다. 실제로도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다. 길지가 풀고 있는 좋은 기운이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이 모인다. 길지라고 불리는 곳은 밝고 따뜻하며 편안한 느낌을 준다. 이런 느낌은 풍수를 모르는 사람도 똑같이 느낀다. 길지를 찾는 건 누가 보아도 편안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곳이 길지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4X3 스도쿠는 가로 세로 4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 세로 3X3박스에 1부터 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를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토쿠65 | 10,000원

		1			6			
		7	5		3	4		
	9						1	
5				3				4
	3		1	4			7	
1				6				9
	5							8
		4	7		2	9		
		3						

		8						7
5								2
7	4		5				8	9
	2	3		7		6	4	
	9		5	4			8	
	7	5		3		2	9	
2	7		6			1		8
6								4
	4							5

<http://argo9.com>

정답

1	4	2	9	6	9	8	7	8
8	9	6	2	8	2	4	1	9
9	8	2	1	4	8	6	9	2
6	8	9	2	9	2	8	4	1
2	8	4	7	8	1	9	8	6
7	9	1	8	8	6	2	2	9
2	1	8	9	2	8	9	6	7
8	6	4	8	1	9	2	9	2
9	2	9	6	2	4	1	8	8

9	9	6	2	1	2	8	4	8
4	2	2	9	8	8	6	1	9
8	8	1	6	9	4	2	9	2
1	6	2	8	8	9	9	2	4
2	8	8	4	2	9	9	6	1
9	4	9	1	2	6	8	2	8
6	1	8	8	9	2	4	9	2
2	9	4	2	6	8	1	8	9
8	2	9	9	4	1	2	8	6

고난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2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78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